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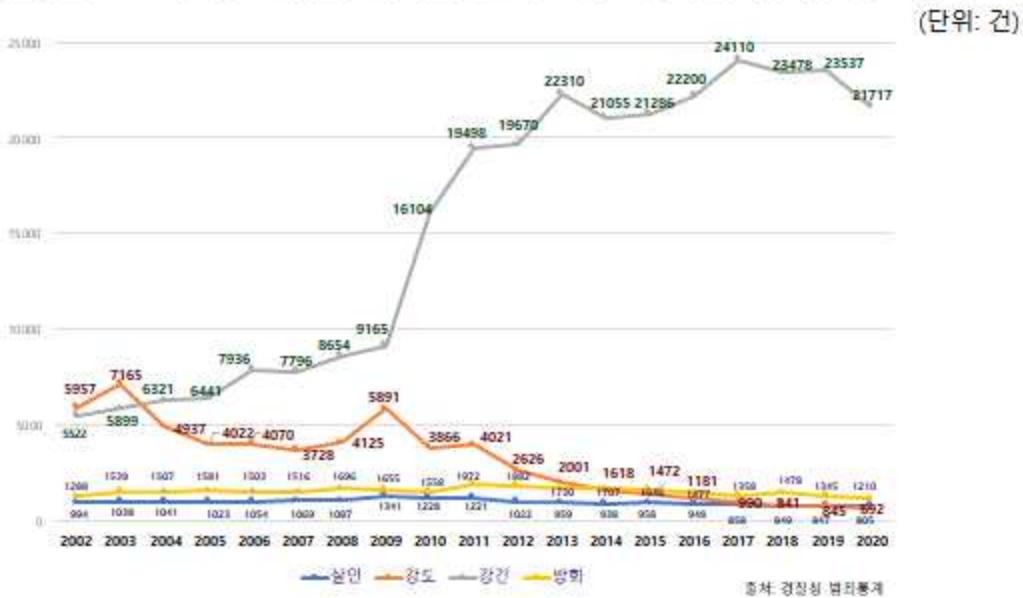
안전과 사회



1 범죄 현황

[강의 보기]

지난 20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추이: 성범죄의 증가추이



<지난 20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추이> 통계를 통해 미래의 범죄 양상 변화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색 라인은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2만 건 이 넘는데 강제 추행까지 포함한다면 폭발적인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강력범죄 중 폭발적 증가 추세인 강간죄를 감소시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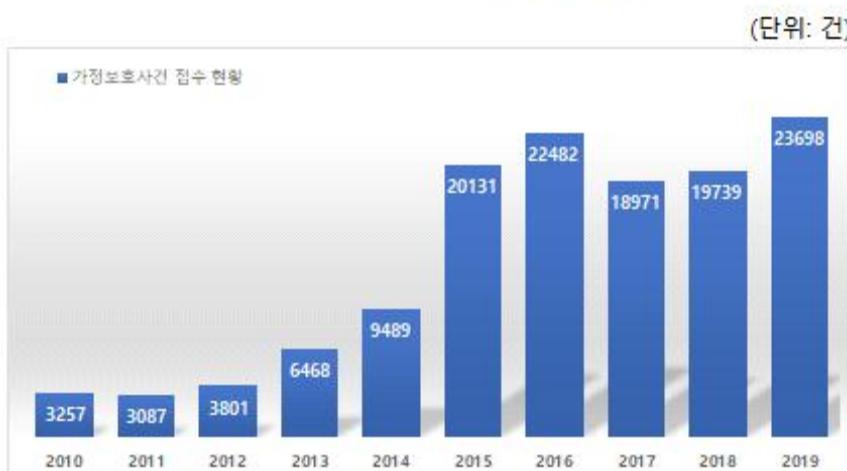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검거 현황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4 & 2020

가정보호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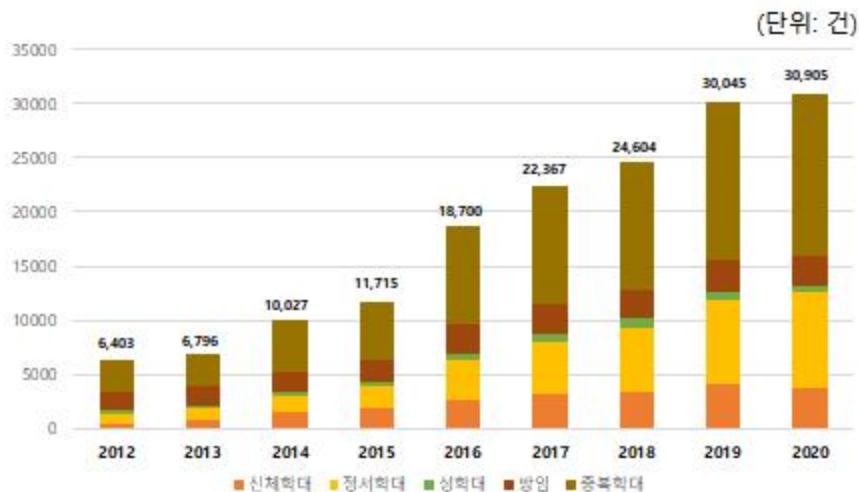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검사와 법원으로부터 승치된 사건
을 말함

출처: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집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가정폭력’

<가정폭력 검거 현황>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 기소 건이 5만 건이 넘고, <가정보호사건 현황>을 보면 상당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양한 보호처분들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발생추이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최근 아동학대 발생추이> 통계를 보면, 2020년 3만 건 돌파하여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웃, 시민들의 신고로 아동학대 발굴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아동학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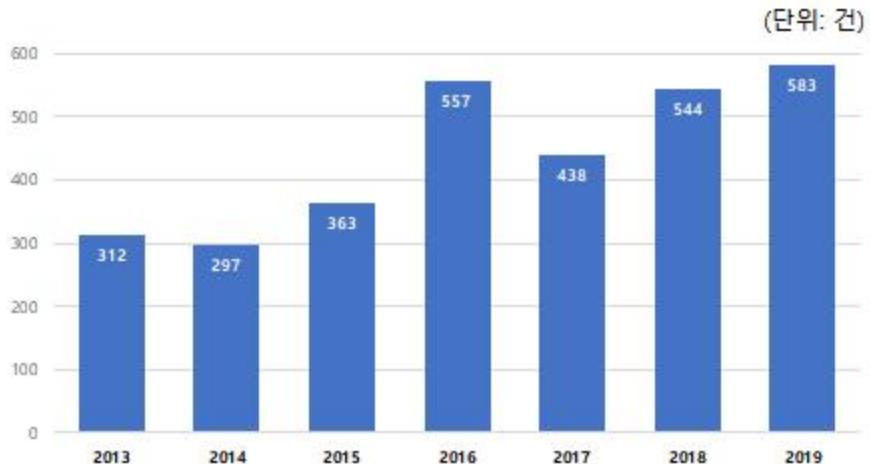
이것은 결국 미래 세상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학대와 성폭력에 노출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반드시 아동학대를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증가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확보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최근 스토킹 범죄 발생추이



정벌죄 [지속적 괴롭힘] : 스토킹 처벌법 적용 이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가능했음. 실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최근에 많은 주목을 끄는 것이 강도사건은 줄었지만,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사건들 은밀하게 일어나는 파트너 폭력 등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위 그래프는 그것을 시사하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스토킹 범죄의 통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20년 입법되어 2021년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통계가 공식화되는 시점에는 금년도 1년 치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발생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위 통계에서 보여주는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되는 지속적 괴롭힘이므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기 전에 신고에 의해서 제재됐던 스토킹 범죄 역시 증가 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증가 추이일 가능성성이 높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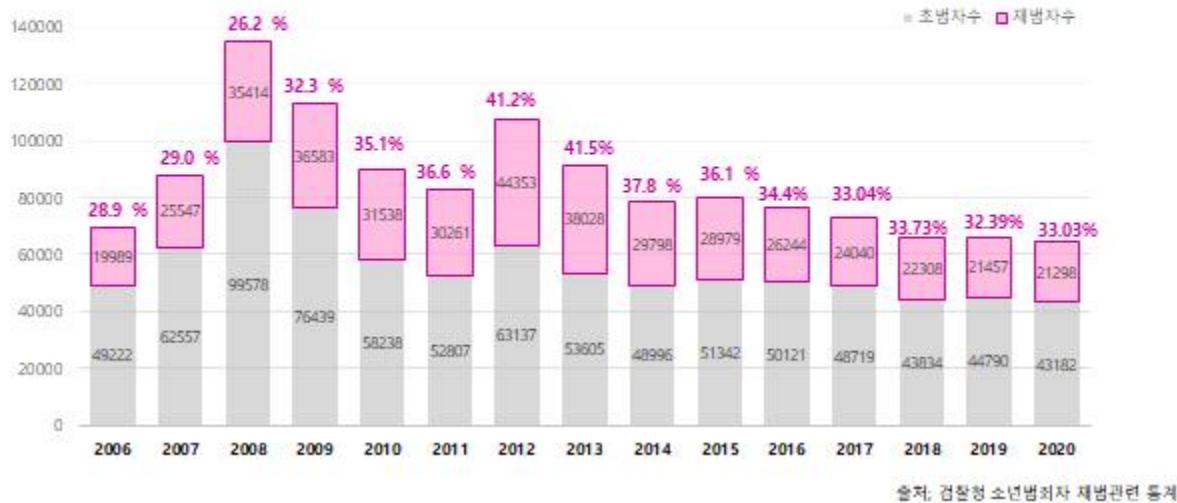
지금까지 이런 통계를 보시면 결국은 강도사건 등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범죄는 상대적으로 감소 추이지만, 집안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는 부모 자식 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등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정책, 신변보호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3 소년 범죄자

소년범 재범율

(단위: 명, %)



소년범들은 언제나 소년범이 아니고 몇 년 후에는 모두 성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소년 사법체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구축 한다면 5년 후, 10년 후 사회 안전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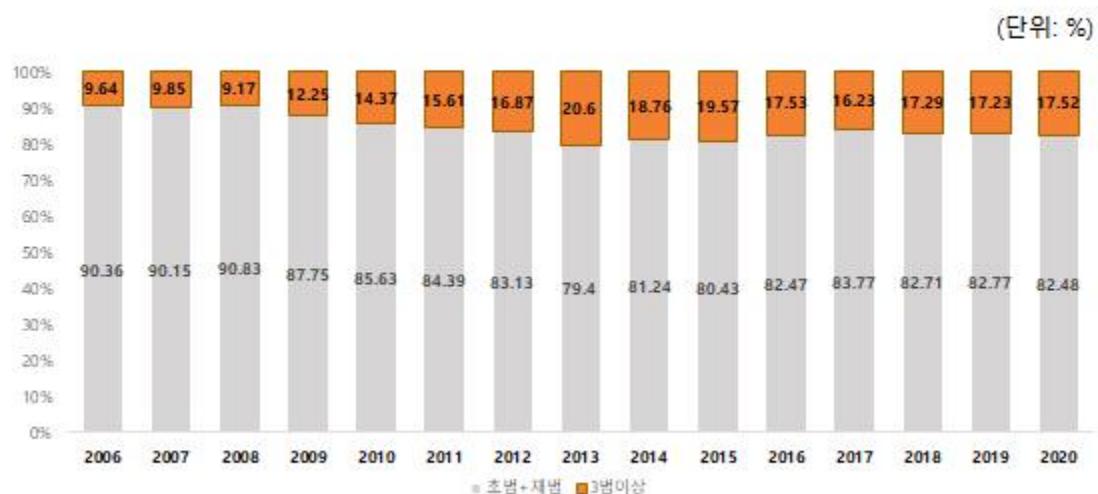
이 통계를 보고 ‘아 소년 범죄가 줄었네’ 하면서 기뻐하시면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이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관련된 통계는 다 감소 추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나 정작 문제는 처음 소년기 때 범죄를 저질러서 편입되는 초범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과 비교를 해보시자면 2012년도에는 거의 60%정도의 초범자 비율이었는데, 2020년을 보면 거의 70%정도가 초범자 비율이 됩니다. 초범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초범자 비율이 늘었을까요?

2012년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던 재범자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범죄학자들이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초범자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범죄를 생전 저지르지 않던 아이들도 범죄에 쉽게 유인된다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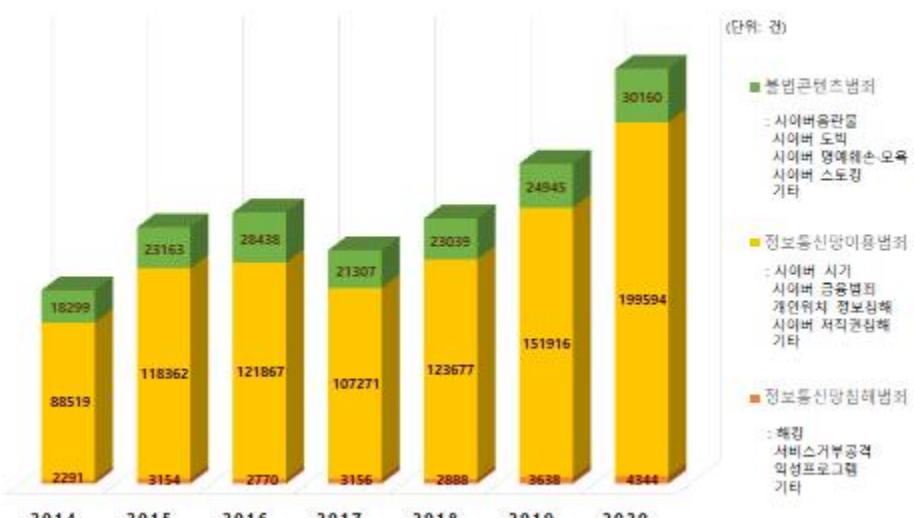


출처: 검찰청 소년범죄자 체벌관련 통계

<전과 3범 이상 소년범 비율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로 3범 이상 상습범 비율은 20% 정도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범죄

최근 온라인 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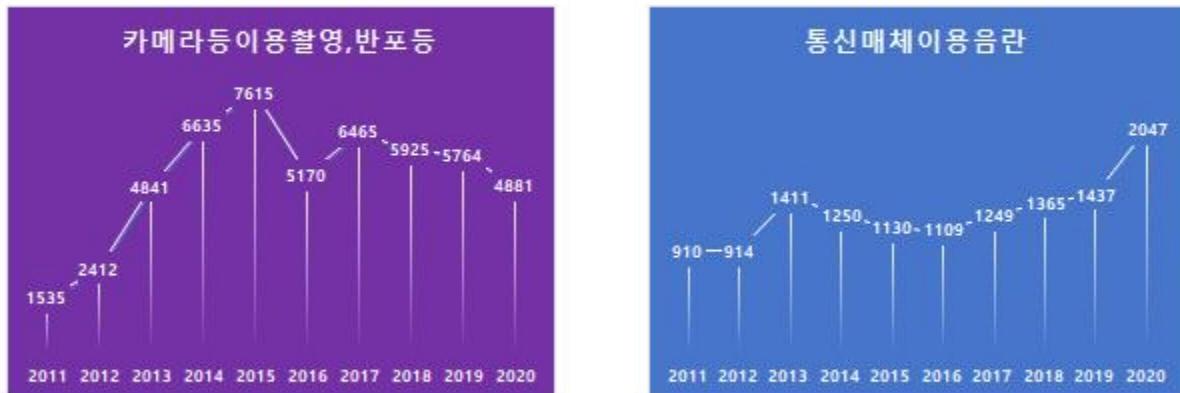
출처: 경찰통계자료 [사이버수사]

<최근 온라인 범죄 발생 추이> 통계를 보면 온라인 범죄 발생이 쉽도록 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법 콘텐츠 범죄가 3만 건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콘텐츠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음란물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들로 유인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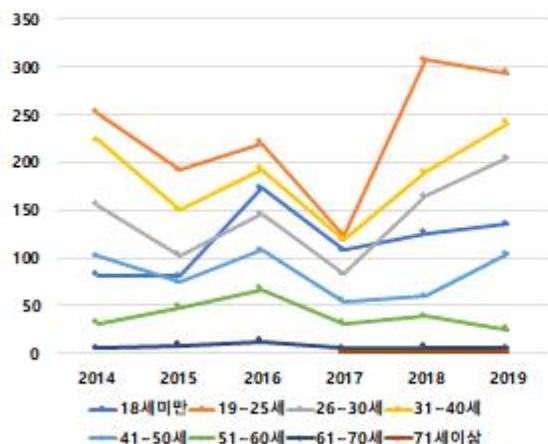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통계범죄-성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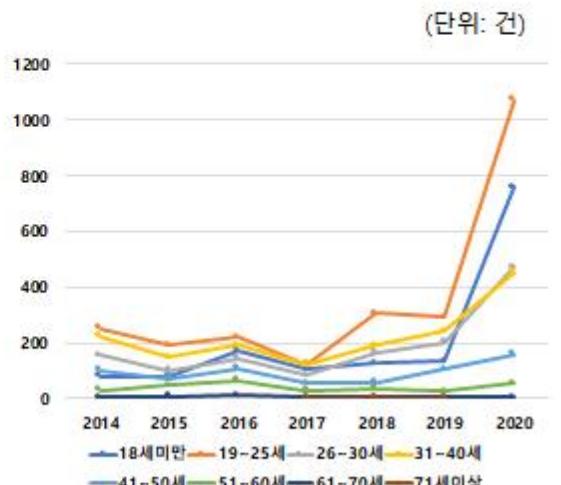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통계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 <SNS 등을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왼쪽 그래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죄>는 약간 추이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인 카메라만 제재해서는 온라인음란죄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범죄는 카메라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다크웹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안에서 여러가지 성적 유인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의 형태가 2020년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등)
2020년 명칭 변경



(출처: 검찰청 범죄통계)

이제 온라인 범죄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음란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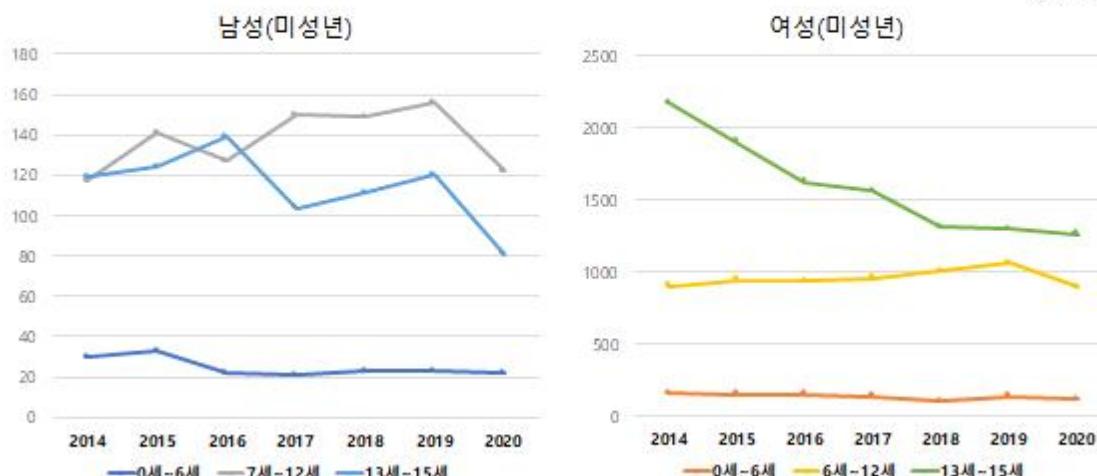
두 그래프 모두 오렌지색(19세에서 25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특히 많이 늘어난 나이를 보시면 18세 미만입니다.

즉, 10대·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N번방 사건에서 적용이 됩니다. 워낙에 10대·20대 가해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전과가 없는 초범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5 미성년 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미성년) 발생 추이

(단위: 건)



(출처: 검찰청 범죄통계)

다음 통계는 피해자 통계입니다.

많은 범죄 통계는 가해자 통계만 보면서 늘었다, 줄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피해를 입는 측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통계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만을 대상으로 피해자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어, 음란물 포함 전체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 성별에 따라 피해자 통계를 산출해봤습니다. 2020년 특이성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미성년) 발생 추이> 그래프 왼쪽은 남성 미성년자들의 피해 통계, 오른쪽은 여성 미성년자들의 피해 통계입니다. 남성 미성년자 피해자 통계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느 연령대가 지금 피해자로 제일 많이 편입되느냐 라는 것인데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1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노란 선이 계속 증가 추이인데이요. 이 노란 선은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12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폭력 피해자로의 편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5년 사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등학생들조차 남녀 가리지 않고 성범죄의 피해자로 많은 수가 편입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보호가 아동 학대에 못지않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을 하신다면 의제 강간 연령 이하의 아이들 또 그 중에서도 13살 미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2 권력형 성범죄

우리 공직 후보자들이 꼭 알아야 하고 유의해야 할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권리형 성범죄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력 : 자신의 지위 또는 권력 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힘
- 위계 :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행위 또는 그 계책 자체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저하되어 있는 대상을 상대로 많이 발생합니다. 위계나 위력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간음죄」 적용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위계·위력 성범죄는 권리형 성범죄라고도 불리는데, 이 권리형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 권리 과시형 :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 저지르는 성범죄
- 감정 호소형 : 권력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며 위로를 강요

1 위력 성범죄 판단기준

사회 저명인사들의 권리형 성범죄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력 성범죄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직장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조직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라고 하면서 그 대의 앞에서는 성범죄 같은 일은 작은 일이나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따라서 신체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및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성범죄에 결코 거절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것입니다.

2 발생 원인과 자기 비판의식 강화 요망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갖는 독특한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잣대를 갖고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한이 커지면서 자기비판의 의식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본인 행동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불법 행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선거 운동을 장시간 하게 되면서 지지하는 그룹이 형성되고 외부 공격에 지지그룹이 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공직 후보자 여러분들도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성인지 감수성

권력형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아랫사람들의 피해를 정확히 공감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인의 감수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 반응을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거울 뉴런, 예컨대 아이 컨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희로애락이 나에게 거울 뉴런을 통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의 고통이 거울 뉴런을 통해 나에게도 “아 이 사람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곧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사고를 하는 권력자들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자율권을 침해받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그것을 내가 혹시 타인에게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감수성, 공감능력 나아가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예비 공직후보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에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습문제

1. 다음은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른 가정폭력 검거현황이다. 이를 본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 ① 희철 : 가정 폭력 범죄는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서 2016년 이후로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가정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되는군.
- ② 진미 : 맞아, 가정 내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놀랐어. 공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 ③ 상호 : 우리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서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어. 진영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 ④ 서정 : 그래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외부자가 참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2. 다음은 2021년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의 조항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

* 시행 2021. 10. 21

○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민국 :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군.

② 철희 :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가 낳은 비극적 범죄들이 스토킹 처벌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화했지. 입법 당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었어.

③ 동숙 :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면 좀 쫓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해.

④ 채연 :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에 비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건 2021년 10월부터였네. 늦었지만 다행이야.

3. 다음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10대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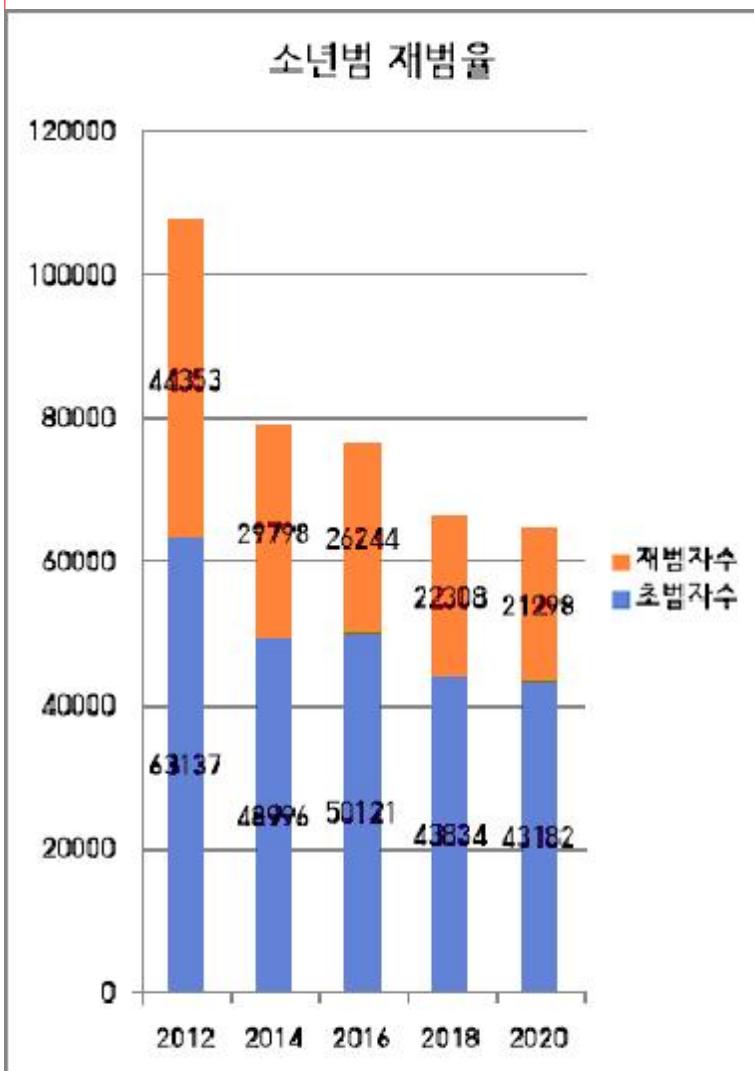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9-2 (성폭력 없는 사회)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 엄격한 성윤리를 적용하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등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아동장애인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견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감시·감독 체계와 2차 가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

- ① 진호 :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야. 이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 평가할만하겠군.
- ② 상철 : 10대 약속에서 언급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는 선언이야. 다소 억울함이 발생할지 모르나 모든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오직 피해자의 의견만을 들어야 하지.
- ③ 상국 :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로 국민의힘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지.
- ④ 지현 : 진영논리에 갇혀 '피해호소인'과 같은 촌극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한 다짐이야. 권력자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중요해.

4. 다음은 <소년범 재범률>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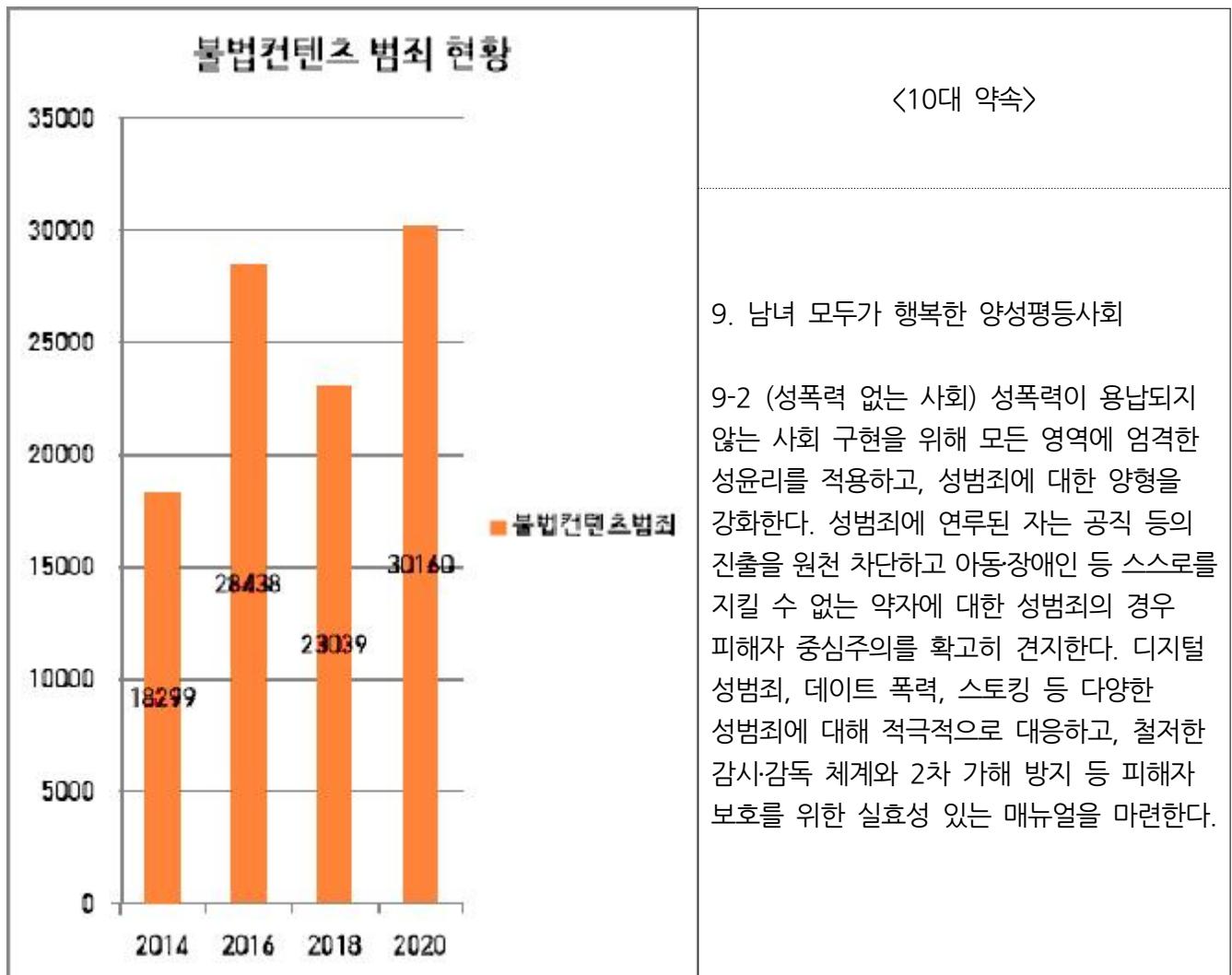
<10대 약속>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8-3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

저출생 사회의 해법은 개인과 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노동시간의 유연화, 안정적 주거복지, 일과 개인 삶 사이의 균형,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양성평등사회 구현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자녀는 양육자에 귀속된 소유물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임을 믿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모든 아동이 국적 및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보편적이고 질 높은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 ① 청아 : 2016년 이후로 소년범 재범율이 30%대에서 제자리 걸음이야. 소년범이라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재범율을 줄여야 해.
- ② 솔이 :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약속이야.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는 재범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어.
- ③ 찬이 : 소년 범죄의 전체 총량은 감소세야.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청소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어.
- ④ 상호 : 초범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야. 아이들이 쉽게 범죄로 유인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진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

5. 다음은 <불법콘텐츠 범죄>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① 미주 :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약속이야. 성범죄의 영역이 디지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범죄에 잠입수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해.
- ② 호찬 :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불법콘텐츠 범죄가 증가세에 있어. 철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초당적인 지원이 중요하겠군.
- ③ 석준 :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2차 가해 방지 역시 중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 ④ 경미 : 이 땅에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소의 인권도 희생해야 해. 국가가 더 강력한 중앙통제, 선제 검열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범죄를 원천 차단해야 해.

6. 다음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권력형 성범죄 예방 교육 중 일부이다. 강사의 언급 중 옳지 않은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 당원협의회 당원 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게 된 김ㅁㅁ입니다.

먼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권력형 성범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권력 과시형'과 권력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며 위로를 강요하는 '감정 호소형'으로 나뉩니다.

이런 ②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위계 등에 의한 추행죄, 간음죄」를 적용 받습니다. 처벌 수위가 2018년도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는 상사에게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한 권위적인 조직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의 앞에서 성범죄 같은 건 작은 일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치부하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③결국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성범죄에 결코 거절하지 못한 채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된 펜스룰(Pence Rule)이 그것입니다. ④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다른 성별의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펜스룰이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정답>

1. ④ 2. ③ 3. ② 4. ① 5. ④ 6. ④